

# North/South Interfaces in the Korean Peninsula

## -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2008년 12월 17일 ~ 19일(3일간)

개최장소 : 프랑스 파리 EHESS(L'ecole Des Hautes Etude en Sciences Sociales)대학 Conference Room

참 석 자 : 한국,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호주(7개국)  
Seung-bok Lee(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

Valerie Gelezeau(L'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

Sebastien Colin(INALCO)

Jeong Ho Kim(Gangwon Development Research Ins)

Rudiger Frank(University of Vienna)

Leonid Petrov(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Elise Prebin(Harvard University)

Cesar Ducruet(CNRS)

Karoline Postel-Vinay(Sciences Po)

Eric Bidet(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Leonid Petrov(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Koen De Ceuster(Leiden University)

Stephen Epstein(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Jim Hoare(Former British Charged affaires in Pyongyang)

### □ 회의 목적 및 필요성

- 회의 목적은 분단국가인 한반도에 있어 남북한 간 다양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과학 분야의 국제적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교류협력을 위한 새로운 연구기법들을 제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데 있음
- 1990년대 이래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토론이 활발히 전개되어

- 왔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이나 북한의 폐쇄주의 정책으로 주로 남한 위주의 학문적 연구로 수행되어 왔음
- 그동안 남북한 교류가 정치적 관계에 의하여 자주 단절된 관계로 남북한 간 교류협력 관련 연구는 국민들의 일상과는 동떨어진 지정학 내지 정치과학적 정책분야 연구에 치중되어 왔음
  - 따라서, 본 회의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시각으로 “고고학, 인류학, 지리학, 역사학, 사회정치과학 등의 사회과학 제반 분야에 걸친 지식교환을 기반으로 삼아 남북한 간 접촉 가능한 넓은 의미의 교류협력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음
  - 즉, 본 회의는 공간적 개념(해안, 도시주변지역)인 접경지역이나 국경지역과 같은 지정학적 범위를 벗어난, 넓은 의미의 인터페이스(interface) 개념을 주제로 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한 새로운 연구 기법들을 교환하고 의견들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 회의 의제

- 남북한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기술하고, 구분하고, 정의할 것인가?
- 남북한 인터페이스 사이의 균형점은 무엇이며 한반도에 있어 남북한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인터페이스가 과거, 현재, 통일된 미래의 한국에 있어 남북한 간 긴장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통합할 것인가?

## □ 회의 주제

- 회의 주제는 크게 공간적 인터페이스, 사회적 인터페이스, 생활적 인터페이스 등 3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음

- 즉, 회의는 유형의 인터페이스(접경지역, 금강산관광지구, 개성산업공단)와 무형 또는 상징적인 인터페이스(북한의 현대판 신화 등)의 다른 형태를 함께 다루고자 하였음
- 회의는 공간, 사회, 생활 부문의 3가지로 구분된 인터페이스에 대해 세션 4로 나눠 진행하였음
- 세션(Session)1에서는 “North/South interfaces and changing regional dynamics in the Korean peninsula”라는 주제로 주로 공간적인 인터페이스(접경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접경지역에서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교류지역들을 조명함
- 세션(Session)2에서는 “Social interfaces between two Koreas”라는 주제로 남한 사회에서 북한 주민들 즉, 탈북자들이 겪는 이념적 문제들과 남한에서의 북한주민들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도 분석 토론함
- 세션(Session)3에서는 “Narrative interfaces, images of the others”라는 주제로 남북한의 공식적인 미디어(역사책, 정부 발간물 등) 또는 문학(소설, 영화 등)을 통해 드러난 남북한 정치사상 및 개념의 차이를 분석함
- 세션(Session)4에서는 “Politics and culture between partition and reconciliation”이라는 주제로, 한반도의 분단과 재통일의 시대에 남한의 국가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남북한 정치시스템에 대해 재조명하는 세션임